

바우하우스 정신과 한국 전통미가 만나다

1층 중앙 전시실로 들어서면 은은한 조명 아래 다양한 형태와 빛깔의 도자기를 만날 수 있다. 모두 287개에 달하는 사발과 접시다. 한 작가의 가마에서 같은 흙으로 빚어진 오묘한 빛깔의 도자기가 바닥에 불규칙하게 놓인 모습은 설치미술을 연상시킨다. 또 다른 전시실엔 핀 조명 아래 놓인 작은 찻상 위 '하얀 사발' 딱 한 작품이 자리하고 있다. 할머니가 정안수 떠놓고 빌던 모습이 떠오른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디아스포라작가전 '이영재-비우고 채우고 비우고'가 오는 12월 8일까지 열린다. 디아스포라 작가전은 우리나라 출신으로 해외에 거주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를 초대해 예술을 통한 역사와 문화교류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기획이다.

서울 출신으로 수도여자사범대학교를 졸업하던



독일에서 47년째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재 작가가 하정웅미술관에 펼쳐놓은 287개의 사발과 접시는 설치작품처럼 보인다.

광주시립미술관 12월8일까지 '이영재-비우고 채우고 비우고'전 47년째 독일서 거주...100년 역사 마가레텐회에 공방 대표 두개 사발 붙인 '방추형 항아리' 눈길...필른 베드로 성당서 작품 사용



독일에서 47년째 머물며 활동중인 이영재 작가.



두개의 항아리를 이어붙인 '방추형 항아리'

1972년 간호사였던 어머니를 따라 독일로 건너간 이 작가는 100년 전통의 독일 마가레텐회에 공방 대표로, 동서양의 정서와 미감이 결합된 독창적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독일 에센 지역 폐공으로 세계문화유산 줄퍼라인에 자리한 마가레텐회에는 바우하우스 이념을 계승하는 100년 전통의 공방으로, 독일 내에서 역사와 전통을 높게 평가받는 곳이다.

특히 이 작가가 빛은 잔은 필른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용 술잔으로 사용중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요셉 보이스와 친분을 유지하는 등 동시대 미술에 관심이 많아 성당을 현대미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루인 베드로 성당 신부의 의뢰를 받은 이 작가는 다섯달 동안 770개의 잔을 만들었고, 공방에 '열병식 하듯' 놓인 작품 속에서 신부는 아홉개를 선택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처음 독일에 갔을 때는 브랑쿠시 같은 조각가가 되고 싶었죠(웃음). 하지만 곧바로 도자기의 매력

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미 10대 시절부터 마이스터가 되기 위해 도자기를 배우는 독일인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물레 돌리는 방법이 달라 고생하기도했지만 제 방식을 고집하며 저만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의 공방은 바우하우스에서 공부한 이들이 시작한 곳이라 바우하우스 이념을 실현하고 있어요. 단순한 형태로,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쓰임으로서의 도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개막식 참석 차 광주를 찾은 이 작가의 말이다.

소박함과 자연미가 특징인 한국 도자와 독일의 실용적 태도를 결합한 간결하고 세련된 조형미는 이 작가 작품의 특징이다. 이번 전시작 중 독특한 작품은 두 개의 사발을 결합시킨 '방추형 항아리'로, 지금까지 온화한 곡선미의 항아리에 익숙한 이들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작품이다. 그녀는 '1+1'이라는 화두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고, 그 고민들을 녹여낸 게 따로 빛은 사발 두 개를 대칭적

로 이어 붙인 방추형 항아리로, 이음새의 각진 모습과 사발의 곡선이 어우러져 독특한 조형미를 만들어낸다. 그밖에 소박하게 빛은 '꽃병' 시리즈는 화려하지 않은 문양과 다양한 형태가 눈에 띈다.

매끈한 질감이 돋보이는 이 작가의 작품에서 인상적인 건 다채롭고 은은한 색감이다. 특히 방추형 항아리의 경우 이어붙인 두 개의 사발이 같은 듯, 다른 색감과 표면을 만들어내는 게 흥미롭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영상물도 눈길을 끈다. 독일 본 예술대학 메네케스 교수 등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에서는 이 작가의 작업장과 전시 연출 모습, 작품 철학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작가는 자신을 '도공'이라 칭하며, 피아니스트들이 연습곡을 치듯, 날마다 작은 크기의 도자기를 만들어 가며 단련한다고 이야기한다. 또 자신에게 도자기를 빚는 건 입술을 만들고, 배를 만드는 등 '몸'을 빚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비스바덴미술대학에서 도예와 디자인을 전공한 이 작가는 카셀대학교 도예과 연구 교수를 역임했으며 폴란드 브로츠와프 미술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뮌헨 현대미술관 등 주요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개최했고 유럽 5대 화랑 중 하나인 칼스텐 그레브 소속작가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오디오북 체험 서비스

'귀를 쫓긋' 소리로 읽어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허클베리핀의 모험', '모멸감' 등을 '귀로 읽을 수 있는' 오디오북 서비스가 제공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은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를 통해 오디오북 체험서비스를 지난 17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사진>

4대의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는 오디오북은 10~15분 정도 분량의 체험판으로 우선 30종을 선보이며, 내년 4월까지 총 100여종을 제공할 예정이다. 체험공간은 편하게 휴식을 취하며 오디오북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배철수, 정은채, 손정은, 옥상달빛 등 방송인과 배우 그리고 가수 등이 목소리 제공자로 참여하며 이들의 익숙한 목소리를 통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허클베리핀의 모험'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들을 수 있다.

이번 오디오북 체험공간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조성됐으며 현재 ACC를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 10곳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라이브러리파크 방문 이용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체험 서비스는 내년 8월까지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양숙 초대전, 25일까지 원 갤러리

묵향 가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문인화가 '빛들' 김양숙 작가 초대전이 오는 25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원 갤러리에서 열린다.

첫 전시를 마련한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은은한 먹의 농담과 번짐이 특징인 수묵 담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화폭에서 만나는 건 늘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 점점이 박힌 섬 사이로 지는 아름다운 노을, 붉은 단풍으로 물든 숲길 등이다.

또 고향의 겨울날 모습,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농가 등 소박한 풍경화도 전시중이다. 그밖에 흰

눈 속에 핀 동백, 잠자리와 어우러진 코스모스, 맨드라미, 민들레, 모란, 칸나 등 화사한 꽃들도 만날 수 있다.

문인화에 입문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서예 공부를 해온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반야심경', '뜻으로 풀 반야심경' 등 한글과 한문 서예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한상운·홍동의 선생을 사사한 김 작가는 대한민국 문인화대전, 광주시 미술대전·전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며 한국문인화협회, 목취회, 빛고을 문인 화여류 작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아름'

1인방송 열풍에 유튜브 관련도서 급증

1인 방송 열풍이 지속되면서 유튜브 관련 도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파크가 올해 1~9월까지 9개월 간 컴퓨터·인터넷 도서 분야 1인 방송 관련 도서 매출을 분석한 결과 관련 도서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했다.

작년 해당 부문 연간 베스트셀러 1위는 사무 업무 관련 도서인 '직장인을 위한 실무 엑셀'이었으나 올해 1위는 1인 방송 관련 도서인 '비디오클래스 하천의 유튜브 동영상 편집'이 차지했다.

아울러 구매 연령층은 30대 61%, 20대 31%, 10대 3% 등으로 집계돼 20~30대가 전체의 90%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엑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